2014.02.07

주간

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

Contents

I. 베트남내 기업동향

◈ 한국진출기업 동향

◈ 외국진출기업 동향(한국진출기업 제외)

◈ 베트남기업 동향

II. 베트남 산업/정책/기타 주요뉴스

대한상공회의소

베트남사무소

I. 베트남내 기업동향

◈ 한국진출기업 동향

▶ 삼성전자, 내달초 베트남 제 2 휴대전화공장 가동 개시

▶ 중진공, 베트남에 中企 전용매장 낸다

▶ 참빛그룹, 베트남 공안부에 장학금 5 천만원 전달

▶ 포스코건설, 베트남서 고속도로 연쇄 개통

◈ 외국진출기업 동향(한국진출기업 제외)

▶ 맥도날드, 베트남 첫 매장 연다

▶ 中 섬유업체 베트남 러시…TPP 예상 美 시장 겨냥

▶ 베트남, 외국인 투자 방해하는 '범죄경력 확인서'

▶ 일 외식업체 베트남에서 선술집 전개

▶ 혼다 베트남, 일본에 신형 스쿠터 수출

◈ 베트남기업 동향

▶ 베트남, 곧 미•스위스 업체 GM 옥수수 재배 승인"

▶ 베트남계 불법'홈웍'성행 재미 한인 봉제업체 타격 크다

II. 베트남 산업/정책/기타 주요뉴스

▶ 베트남, 두번째 첨단 잠수함 인수…전력증강 가속

▶ 베트남, 올해 쌀 800 만 t 수출…섬유수출도 '날개'

▶ 베트남 경기회복 지연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추세

▶ 메콩델타 지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개장

▶ 베트남 공공 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법 개정

▶ 무역수지 흑자에 상반된 반응

I. 베트남내 기업동향

◈ 한국진출기업 동향

삼성전자, 내달초 베트남 제 2 휴대전화공장 가동 개시

○ 베트남 북부에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가 내달 초 동일한 크기의 생산시설을 추가 가동함

○ 6 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생산법인(SEV)은 3 월초 타이응옌 성 옌빈공단 부지에 제 2 휴대전화 공장을 완공,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함

○ SEV 는 이를 위해 북부 박닌성 옌퐁공단 제 1 공장 인력 4 만여명 가운데 약 4 천명의 인력을 타이응웬 성 생산시설로 이동 배치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
○ 삼성전자의 타이응웬 공장은 우선 첫 달에는 약 100 만대를 생산한 뒤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4 분기 중에 월 800 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임

○ 초대형 공장 2 동으로 이뤄진 타이응웬 공장은 박닌성의 제 1 공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연산 1 억 2 천만대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베트남에서의 전체 생산량은 2 억 4 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됨

○ 삼성전자의 옌빈공단에는 특히 삼성전기와 한솔그룹의 베트남법인 등 관련기업들도 대거 입주, 생산 채비를 서두르고 있음

○ 삼성전자측은 타이응웬성 당국이 제공한 전체 부지 110ha 가운데 약 70ha 는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는 삼성전기 등 관련업체가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

○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타이응웬성 옌빈공단에 각각 20 억 달러와 12 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

○ 한편 타이응웬 성과 하노이를 잇는 고속도로 역시 삼성전자의 제 2 공장 완공시기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알려짐

○ 타이응웬성 정부는 삼성전자 제 2 휴대전화 생산시설에 4 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

* 출처: Yonhapnews, 02.06

중진공, 베트남에 中企 전용매장 낸다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베트남에 중기 제품 전용 매장을 개설한다. 베트남의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서임

○ 6 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 하반기 중 베트남의 롯데마트 지점에 중기제품 전용매장인 'K-히트 플라자'(Hit Plaza)를 설치키로 함

○ 이를 위해 롯데마트와 개설 지역 등 세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 롯데마트는 현재 베트남에서 6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

○ 중진공은 우선 롯데마트 지점 한 곳에 매장을 개설 한 뒤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점 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. 중진공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기전용 매장을 개설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

○ K-히트 플라자는 중소기업청이 예산을 지원해 중진공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, 전시·판매하는 정책 매장임

○ 중진공의 베트남 전용매장 개설은 현지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. 실제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증가율은 2003 년 이후 10 년 간 연평균 22.5%의 고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런 여세를 몰아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 6 위 수출국으로 성장함

○ 베트남의 30 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에서 60% 정도를 차지해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도 매장 개설 요인임

○ 중진공 관계자는 "베트남의 한류 영향으로 국내 농산물과 섬유, 의류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느는 추세"라며 "여기에 소비 잠재력도 높은 편이어서 매장을 개설키로 했다"고 말함

○ 한편, 중진공은 지난해 12 월 중국의 칭다오 까르푸와 지난달 베이징 롯데마트에 매장을 개설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에는 시안 로터스에도 매장을 개설할 예정임

○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, 중국 2 개, 독일 17 개(전시판매대) 등 총 21 개 중기 전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

* 출처: mt.co.kr, 02.06

참빛그룹, 베트남 공안부에 장학금 5 천만원 전달

○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업체 참빛그룹(회장 이대봉)이 25 일 베트남 공안부에 장학금 10 억 동(5 천만 원)을 기부함

○ 이대봉 회장은 이날 하노이 공안부 국제협력국 청사에서 열린 장학금 기증식에서 베트남전 등에서 숨진 공안 유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 돈을 전달함

○ 올해로 6 번째인 이 행사에는 응웬 반 히에우 공안부 수석차관 등 공안부 간부들과 전대주 주 베트남 한국대사, 구본수 전한인회장, 김정인 베트남하노이한인상공인연합회(코참) 회장 등 100 여 명이 참석함

○ 이 회장은 "한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안타까운 일을 저질러 이를 사죄하는 뜻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"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함

○ 이 회장은 지난 10 월 31 일에도 북부 화빈 성(省) 문화궁전에서 현지 학생 300 명에게 모두 6 억 동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함

○ 이 회장은 지난 2010 년부터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화빈성 지역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옴

○ 한국과 중국 등에서 도시가스업과 항공화물, 골프장, 호텔업을 하는 참빛그룹은 베트남 화빈성과 하노이에서 각각 54 홀 규모의 골프장과 5 성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

* 출처: Hanoi Korean News, 2014.02

포스코건설, 베트남서 고속도로 연쇄 개통

○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북부 고속도로의 첫 구간과 남부지역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잇따라 개통함

○ 포스코건설은 2 일 오전(현지시간) 호찌민 남부 롱타잉 지역에서 호찌민~저우자이 고속도로 3 공구의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힘

○ 이날 개통식에는 딩 라 탕 교통장관 등 베트남 고위관리들과 기무라 도모유키 아시아개발은행(ADB) 베트남 대표, 박시성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 등 200 여명이 참석함

○ 호찌민~저우자이 고속도로는 제 2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롱타잉을 경유하는 총 연장 51 ㎞ 규모로, 포스코건설이 이날 개통한 3 구간은 왕복 4 차선 9.9 ㎞에 이름

○ 박시성 포스코건설 동남아사업단장은 "착공 2 년 7 개월여 만에 완공한 제 3 공구는 품질로 베트남 발주처와 정부의 신뢰를 얻은 곳"이라며 "새로 공사에 들어가는 공구 역시 모범 현장으로 운영할 것"이라고 강조함

○ 이에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 월 27 일에도 베트남 북부의 노이바이~라오까이 고속도로 첫 구간을 개통함

○ 이 구간은 왕복 4 차선 26.78 ㎞ 구간으로, 부지보상 등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3 년 8 개월여 만에 준공됨

○ 하노이공항이 위치한 노이바이와 중국 접경 라오까이를 잇는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244 ㎞ 규모로 베트남 정부와 ADB 가 '메콩강유역(GSM) 개발사업'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음

○ 총 12 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고속도로는 특히 향후 하노이와 중국 윈난성 쿤밍지역을 연결, 인도차이나 북부 개발·물류산업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유광재 포스코건설 사장은 노이바이~라오까이 노선의 경우 이주보상 지연 등 많은 어려움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구간을 개통했다며 이 고속도로가 향후 베트남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함

○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도로공사를 수주,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
* 출처: Hanoi Korean News, 2014.02

◈ 외국진출기업 동향(한국진출기업 제외)

맥도날드, 베트남 첫 매장 연다

○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가 버거킹에 맞서기 위해 베트남에 매장을 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 일(현지시간) 보도함

○ 맥도날드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현지 파트너 굿데이호스피탈리티와 손잡고 8 일 350 석 규모의 첫 매장을 염

○ 헨리 응웬 굿데이호스피탈리티 대표는 “맥도날드 매장이 10 년 안에 100 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”고 말함

○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은 버크셔헤서웨이의 인터내셔널데어리퀸의 진출을 이끄는 등 최근 해외 먹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음

○ 인터내셔널데어리퀸은 지난 달 호치민에 첫 매장을 열었다. 앞서 도미노피자를 비롯해 던킨브랜드그룹의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 등이 베트남에 매장을 열었으며 파파이스루이지애나키친과 서브웨이, 스타벅스 역시 베트남시장에 진출함

○ 마커스 타우시그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는 “베트남의 맥도날드 매장은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로 가득찰 것”이라며 “부모들에게 맥도날드의 음식이 맞지 않지만 현대적인 분위기와 맛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기뻐할 것”이라고 전함

○ 버거킹은 지난 2011 년 베트남에 첫 매장을 오픈했으며 현재 29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. 양브랜드의 KFC 는 1997 년부터 진출함

* 출처: etoday.co.kr, 02.06

中 섬유업체 베트남 러시…TPP 예상 美 시장 겨냥

○ 중국 섬유업계가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보도함

○ 중국 섬유업계는 베트남 봉제업체들이 이미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참여하는 점을 매력적으로 여긴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함

○ TPP 가 체결되면 미국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섬유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게 된다. 베트남은 현재 지난해 기준 약 180 억달러 어치의 봉제제품을 생산해 이 중 절반을 미국에 수출함

○ 지난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텍스홍섬유그룹의 홍톈주 회장 겸 최고경영자(CEO)는 “미국 수입관세가 제거되면 베트남 공장 생산능력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함

○ TPP 에 따라 미국의 수입관세를 면제받으려면 베트남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즉, 옷감에 쓰인 원사가 베트남에서 방적돼야 함

○ 텍스홍은 지난해 7 월 3 억달러를 투자해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대 도시 밍카이에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함

○ 이 회사는 35 만㎡ 부지에 6 개 공장건물을 지어 방적에서 염색, 봉제까지 의류제조의 모든 공정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. 텍스홍은 둘째 단계 투자를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섬유 생산능력을 11 만 t 으로 확충하기로 함

○ 텍스홍이 지난해 개최한 투자진흥세미나에는 약 50 개 중국 홍콩 기업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냄

○ 홍콩 봉재업체 TAL 그룹은 스리랑카 회사와 함께 진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. 다른 홍콩 회사는 1 억달러를 투자해 청바지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임

○ 지난해 중국의 승인 기준 베트남 직접투자는 22 억 7000 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.1 배 증가했다. 지난해 중국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한국과 싱가포르보다는 적지만 일본보다는 많은 규모임

○ 베트남이 중국의 투자 러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이다. 중국의 투자로 베트남 섬유산업은 앞선 생산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○ 하지만 지난달 현지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양날의 칼로 받아들임

○ 중국 투자 증가는 반가워도 이로 인해 베트남의 기존 봉제업체와 관련 산업이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임

○ 베트남은 또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도 걱정한다. 지금도 베트남 섬유업체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

○ 원사와 섬유 등 원부자재의 약 50%를 중국에서 수입한다. 다른 산업도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대(對)중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237 억달러로 사상 최대 폭을 기록함

○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하지만 정치적인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조업 규제를 강화했고 베트남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함

○ 2 월 17 일은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해 전쟁이 발발한 지 35 주년이 되는 날이다. 베트남의 중국 규탄 시위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예상함

* 출처: asiae.co.kr, 02.06

베트남, 외국인 투자 방해하는 '범죄경력 확인서'

○ 최근 베트남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'외국인 직접 투자'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
○ 이에따라 각 지방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과 옵션을 준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음

○ 하지만, 최근 대만계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의 지분 50%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투자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투자허가서 발급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

○ 이같은 사실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확대을 위한 행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

○ 개인 투자자의 경우 경제 관련 소송 행위 및 분쟁으로 범죄 경력 확인서에 등재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. 하지만, 그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,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의 투자가 취소된다면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임

○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구비 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'범죄경력 확인서'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

○ 실직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임

* 출처: vinatimes.net, 02.04

일 외식업체 베트남에서 선술집 전개

○ 일본의 외식프랜차이즈전문업체인 코로와이드그룹은 1 월 11 일 베트남·호치민에 베트남 3 호점이 되는 "NIJYU-MARU"Aeon Mall Tan Phu Celadon 점(탄푸 이온점)을

오픈함

○ 호치민에 최초의 이자가야(居酒屋: 선술집) 개원 후 이온몰(AEON) 내에서는 인기 음식점중 하나가 됐다. 점포 매출도 예측의 200%를 넘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점포 전개의 원동력으로서 기대를 걸고 있음

○ 2012 년에 베트남 유통 업체인 후 타이 홀딩스와 업무 제휴해, "NIJYU-MARU"1 호점을 하노이에 오픈했고 향후 10 년간 200 개 지점을 베트남 국내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함

* 출처: Vinahanin.com, 02.06

혼다 베트남, 일본에 신형 스쿠터 수출

○ 혼다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제조한 배기량 50cc 의 신형 스쿠터"Dunk(덩크)"를 일본에 수출함

○ 젊은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 것으로 2 월 20 일에 발매 예정. 메이커 희망 소매 가격은 세금 포함 20 만 8,950 엔(약 2,210,000 원)으로, 연간 2 만 5,000 대의 판매를 목표로 함

○ 덩크는 "젊은이의 통학, 통근, 또 평소 생활의 즐거움을 넓히는 스쿠터"를 테마로 디자인이나 사용법을 리서치 하고 개발된 저 마찰 기술을 다방면에 걸쳐 채택한 새 개발 엔진"eSP"을 50cc 급에 처음 탑재하고 있어, 1 리터당 75km 의 높은 연비 성능을 실현함

○ 개발하여 1997 년에 생산을 개시한 혼다·베트남은 올 1 월 중순에는 이제까지 태국에서 생산하던 125cc 스쿠터"PCX"의 제조를 개시하는 등 라인 업을 늘리고 있음

○ 이 회사는 북부 하남성에 건설한 오토바이 제 3 공장을 3 월에 가동할 예정으로, 우선은 부품 생산부터 시작해 시기를 보고 완성 차(CBU)의 제조를 개시한다고 함

* 출처: Vinahanin.com, 02.06

◈ 베트남기업 동향

베트남, 곧 미•스위스 업체 GM 옥수수 재배 승인"

○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스위스 전문업체들이 자국 농지에 추진하는 유전자변형(GM) 옥수수 파종을 조만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베트남 언론이 4 일 보도함

○ 이들 매체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, 스위스의 신젠타와 미국 몬산토 관련업체 등이 북부와 중부, 남부 등 6 개 성에 각각 1.5~2ha 규모의 농지를 조성, GM 옥수수 파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

○ 이는 해당 업체들이 GM 옥수수 종자의 판매 허가를 받기도 전에 파종을 허용하는 파격 조치로 전문업체의 정보와 기술 전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됨

○ 이에 따라 이들 전문업체는 지난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살충제와 제초제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데 이어 GM 옥수수 파종 허가까지 받게 돼 베트남 진출이 한층 가속될 것으로 보임

○ 이들 업체는 현재 선라와 빈푹, 홍옌 등 북부 3 개 성과 중부 고원지대 닥락성, 바리어 붕따우와 동탑 등 남부 2 개 성에 GM 옥수수 파종을 추진하고 있음

○ 한편 GM 옥수수 종자 판매 허가권자인 천연자원환경부는 이들 전문업체가 지난 2011 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벌여온 GM 옥수수 종자의 재배 실험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

○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GM 옥수수와 목화, 대두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

* 출처: Vietnamlife.co.kr, 02.04

베트남계 불법'홈웍'성행 재미 한인 봉제업체 타격 크다
일감 받아 집에서 작업, 단가 낮아 경쟁에 불리

○ 한인 봉제업체들이 베트남계 업주들의 홈웍(home-work)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

○ 한인업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봉제업체들은 매뉴팩처링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은 뒤 이 중 상당량을 가정집에서 봉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으며, 여기서 작업이 끝난 제품들을 다시 모아 공장에서 실밥을 정리하고 다리미질을 하는 등의 간단한 잔업을 마친 뒤 매뉴팩처링 업체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○ 이 같은 현상은 가든그로브 등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베트남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겨나 암암리에 이루어지다가 지난 4~5 년 전부터 본격화되면서 한인 업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업계는 전함

○ 이처럼 정식 봉제업 라이선스 없이 일감을 집에서 처리하는 홈웍은 불법행위로 주 노동청은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

○ 하지만 일부 매뉴팩처링 업체들은 단가를 낮출 수 있고, 베트남계 봉제업체들은 직원을 정식 고용하지 않고 훨씬 낮은 인건비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어 이같은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

○ 실제로 한인 봉제업체들에 따르면 한인 봉제업체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1 달러라면 이들 업체에서는 85~90 센트 선에서 단가가 설정돼 가격 경쟁이 치열한 메뉴팩처링 업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임

○ 한한인 봉제업체 업주는 “베트남 홈웍의 경우 한인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단가보다 약 10~15%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라며 “이로 인해 그 쪽으로 일감이 몰려 우리가 받는 일감은 줄고 있는 현실”이라고 전함

○ 다른 업주 역시 “베트남의 경우 같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연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성향이 있다”라며 “그런 부분 때문에 일감이 더욱 줄어 불경기에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가 더 힘들어 지고 있다”고 전함

○ 노동청은 그간 홈웍을 행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베트남 업체의 경우 실제로 공장을 차려놓은 뒤 그 안에 정상적인 서류를 갖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등 겉으로는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* 출처: hankooki.com, 02.06

II. 베트남 산업/정책/기타 주요뉴스

베트남, 두번째 첨단 잠수함 인수…전력증강 가속

○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러시아산 3 세대 킬로급 디젤 잠수함을 잇따라 도입하는 등 해군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음

○ 4 일 베트남 매체와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달 1 호 잠수함 '하노이 킬로-636'호를 도입한 데 이어 조만간 동일 기종의 잠수함을 추가 인수함

○ 이타르타스통신은 베트남이 발주한 킬로급 잠수함이 지난 3 일 발트해 연안의 항구도시 칼리닌그라드에서 네덜란드의 초대형 수송선에 실려 베트남 남부 깜라인만으로 향했다고 전함

○ 이 잠수함은 최근 발트해에서 성공리에 시험운전을 실시하는 등 공식 인도에 필요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침

○ '호찌민'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루빈중앙설계국이 설계한 3 세대 잠수함으로 기동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'블랙홀'로 불림

○ 배수량 3 천 t 급인 이 잠수함은 최대 작전 수심 350m, 작전 반경 6 천~7 천 500 ㎞로 고속 기동이 가능한 첨단 엔진을 장착해 초계작전, 대(對)수상함작전 등에 유리한 기종으로 평가됨

○ 베트남 해군은 앞서 1 월 초에도 킬로급 디젤 잠수함 1 척을 도입해 전력화함. 특히 베트남은 이달 초 소형 잠수정을 자체 건조, 시험운전에 성공하는 등 자체 잠수정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

○ 영유권 분쟁도서 스프래틀리 군도의 베트남 지명을 본떠 '쯔엉사'로 명명된 이 잠수정은 최대 작전 반경이 800 ㎞, 작전 수심은 50m로 알려짐

○ 해당 잠수정에는 장시간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'공기불요체계(ATP)'와 첨단 항법장치 등이 탑재됨

* 출처: Yonhapnews, 02.04

베트남, 올해 쌀 800 만 t 수출…섬유수출도 '날개'

○ 대표적인 쌀 생산국인 베트남의 올해 쌀 수출이 800 만 t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.

○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5 일 관련업계 소식통을 인용, 올해 쌀 수출이 작년 실적 660 만 t 보다 약 140 만 t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함

○ 이에 따라 베트남의 올해 쌀 수출은 작년 실적 약 30 억 달러보다 약 6%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신문은 전함

○ 쯔엉 타잉 퐁 베트남 식품협회(VFA) 회장은 700 만 t 가량이 해외시장으로 선적되고, 나머지 약 100 만 t 은 국경무역과 기타 방식으로 소화될 것으로 전망함

○ 퐁 회장은 그러나 태국, 인도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세계 각국이 수입 확대보다는 자급자족에 주력하고 있어 일부 차질도 점쳐진다고 설명함

○ 그는 특히 과거 상당량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도 최근 수년사이 자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함

○ 섬유부문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TP) 협상 타결 전망 등 호재에 힘입어 금액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됨

○ 베트남 섬유업계는 TPP 협상이 예정대로 오는 4 월께 타결되면 미국과 호주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약 10%의 실적 증가를 전망함

○ 국영 섬유업체 비나텍스의 레 띠엔 쯔엉 부사장은 "TPP 협정 체결시 섬유업계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될 것"이라면서 미국과 뉴질랜드 외에 상당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봄

○ 베트남은 현재 TPP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해당 국가들의 전체 섬유수출 가운데 약 60%를 차지할 만큼 섬유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

* 출처: Yonhapnews, 02.05

베트남 경기회복 지연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추세

○ 국제 노동기구(ILO) 베트남 사무소는 2013 년 4 분기 고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실업률은 1.9%로 전년도 1.81%에서 소폭 상승했지만,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함

○ 그러나 25 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의 2013 년 Q4 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 배가 넘는 5.95%였고, 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약 11%을 육박함

○ 또한, 베트남은 2013 년 Q4 전체 일자리가 +1.7 포인트 상승한 반면, '취약한 고용(자영업자나 가족 종업원 포함)'의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+2.2 포인트 상승해 전체의 62.1%를 차지하고있다. 이는 세계 평균(47.7%)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

○ 2013 년 Q4 의 일자리 창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+1.7% 증가한 86 만 2000 명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성장률이 +4.8%로 가장 높았다.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, 산업, 건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함

○ ILO 베트남 사무소는 '청년층 근로자의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우려 할 수준에 도달했다. 안정적인 사회 구축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.'고 언급함

* 출처: thesaigontimes.vn, 01.21

메콩델타 지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개장

○ 지난 1 월 27 일 박리에우(Bac Lieu)省 박리에우(Bac Lieu)시 냐맛(Nha Mat) 리조트 관광단지에 메콩델타지역 최대의 인공 워터파크가 해변지역에 오픈함

○ 이 관광지는 2 단계로 나누어 개발되고, 총 2 조 5,000 억 동(약 1 억 2,500 만 달러)이 소요될 예정임

○ 제 1 단계는 다기능 스테이지(3,000 명 수용), 생태 휴양지, 식당, 워터 파크, 인공 해변(21ha)을 건설하는 단계로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오락 시설임

○ 테니스 코트를 포함한 스포츠 시설, 빌라 리조트, 영화관, 4 성급 호텔, 레스토랑, 쇼핑 센터, 푸꿕섬(끼엔장(Kien Giang)省), 호치민시, 혼콰이(Hon Khoai, 까마우(Ca Mau)省) 그리고 껀터(Can Tho)시로부터 도착하는 유람선 승강장을 완비하는 2 단계 공사는 올 9 월 2 일까지 완공될 예정임

* 출처: nld.com.vn, 01.26

베트남 공공 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법 개정

○ 새롭게 수정된 공공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개정법이 2 월 1 일부터 발효한다. 이 개정은 The Construction Contract Regulations 의 제 15 조에 새롭게 제 6 항이

신설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임

○ 이 내용은 공공 사업을 도급 받는데 있어서 일시불 및 고정 가격의 단가 설정시 리스크 요인(risk factors)을 계약 시점에서의 가격 설정에 명확히 관련된 의무를 건설 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임

○ 이 개정법에 따라 건설 회사 등의 도급업자들은 건설 보증금 등 선불을 받고 있는 안건에 대해 사후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금지됨

○ 이러한 구조는 공공 사업의 가격을 부당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현행의 규제안에서도 가장 유효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됨

○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선불금 보증 제도(advance payment guarantees(APGs)가 새로이 실시된다. APGs 에 의한 선불 보증 기간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연장되어 조인트 벤처등의 내부에서 선급금 배당 규제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함

○ 현행의 선불금 보증 하에서 이미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공공 사업의 지급 등의 업무에 관계하는 은행에 있어서는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 같음

○ 이 개정법에 의하면, 도급업체측에 대한 지불의 정도에 따라 도급 대금의 지불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재정 방침의 원칙이 의무화 됨

○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주문측이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는지, 준비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있는데 적합한 예산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급의 지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불투명함

○ 베트남에서의 공공 사업은 건설 사업 가운데 적어도 30%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법 개정은 베트남에서 공공 사업을 도급 받은 외국 기업에 있어서 결코 영향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

* 출처: Vinahanin.com, 02.01

무역수지 흑자에 상반된 반응

○ 베트남이 2 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었음

○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, 베트남은 2013 년 전년대비 15.4% 오른 1,313 억 달러의 수입과 전년 대비 15.4% 오른 1,322 억 달러의 수출로 9 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. 이는 20 년간의 긴 무역적자 끝에 2 년 연속으로 세운 기록임

○ 20 개가 넘는 수출품들은 10 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고, 지방 18 곳은 최소 1 억이 넘는 수출액을기록하였고 무역흑자 또한 베트남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국제수지향상, 외화준비고 인상 및 환율 안정화를 이루는 한 몫을 함

○ 그러나, 최근 이런 흑자가 전적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논의되고 있다. 지난 2 년간의 흑자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주도되었고, 외투기업의 수출실적은 원유 수출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3.1%가 증가함

○ 이는 전년대비 3.1%밖에 오르지 못한 현지소유기업과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지방경제 부문에서의 수출은 여전히 120.5 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

* 출처: Vietnam Investment Review, 2014.01